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4<sup>TH</sup>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2년 7월 3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나”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7 번 시편 51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출애굽기(Exodus) 5:22-6:13</b>	고원희 집사
찬 양 Anthem	“날마다”	찬양대
설 교 Sermon	<b>“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b>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존재보다 소유에 더 많이 집중했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자주 빼앗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벧전 1:24-2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개역개정 **출6:7**)  
“I will take you as my own people, and I will be your God.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from under the yoke of the Egyptians” (NIV Exodus 6:7)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7/3 (주일)	7/4 (월)	7/5 (화)	7/6 (수)	7/7 (목)	7/8 (금)	7/9 (토)
	수5:1-6:5	수6:6-27	수7	수8	수9	수10	수11
본문	시132-134 사65 마13	시135,136 사66 마14	시137,138 렘1 마15	시139 렘2 마16	시140,141 렘3 마17	시142,143 렘4 마18	시144 렘5 마19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7/6수 오후7:30)	“믿음과 행위” (롬10:9-10, 약2:17-18) – 윤영록 장로
토요 새벽기도회(7/9토 오전6:30)	“갈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사88:1-18)

지난 주일(6/26)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8)

“내 백성을 보내라”(출 5:1-21)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니코스 카잔자키스 (Nikos Kazantzakis)는 일찍이 “인간은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역사하심)을 바르게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모세와 아론처럼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1)첫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는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2)둘째,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과정이 곧 결과가 아님을 구분하게 될 때, 우리는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으며, 3)셋째, 우리가 곧 하나님의 가능성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가능”을 뜻하는 ‘impossible’이라는 영어단어에, 문장부호 아포스트로피(Apostrophe) 하나만 들어가도, “나는 가능하다”는 뜻의 “I’m possible” 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작은 점 하나만 우리의 삶에 찍어주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니라”(빌4:13)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Chairos)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